

					II-C-4
제목	국문	대장내시경의 대장 폴립 및 선종의 간과율(miss-rate) - 조기검진 검사방법으로서의 대장내시경 민감도에 대한 고려 -			
	영문	Miss rate of colorectal polyp and adenoma by colonoscopy			
저자 및 소속	국문	이보인 ² , 이세영 ¹ , 최규용 ² , 이원철 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내과학교실 ²			
	영문	Bo In Lee ² , Se-Young Lee ¹ , Kyu Yong Choi ² , Won Chul Lee ¹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¹ and Internal Medicine²,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i>			
분야	역학 [암]	발표자	이세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 폴립(특히 선종)의 진단에 있어 황금표준 검사이나 실제 임상에서는 상당수의 대장 폴립의 간과(miss)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 폴립 간과율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기검진 검사방법으로서의 대장내시경 민감도에 주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p> <p>2. 방법</p> <p>19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의 환자 20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중 3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603명에서 모두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진행암, 용종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장결핵, 육안적으로 확인한 과형성 폴립이나 염증성 폴립이 다발로 있거나 절제된 폴립이 5개 이상이었던 131명을 제외한 472명에게 간과된 폴립발견을 위해 60일 이내에 재검사를 권유하였다. 첫 검사에서 폴립이 발견되지 않은 1403명 중 64명을 무작위로 택하여 당일연속 재검사를 실시하였다.</p> <p>3. 결과</p> <p>연구대상자 472명 중 258명(53.0%)이 추적검사에 응하여 이 중 83명에서 간과된 폴립이 발견되었으며(miss-rate=33.2%), 첫 검사에서 폴립이 발견되지 않은 64명 중 연속재검사에서 폴립이 발견된 경우는 5명이었다(miss-rate=7.8%). 대장선종으로 진단된 예 중에서의 간과율은 20.2%이었다.</p> <p>4. 고찰</p> <p>대장선종은 대장암의 전구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본 연구에서 간과율이 20.2%를 나타낸 것은 조기검진 검사방법으로서의 대장내시경의 민감도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간과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p>					